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24 함께 극락왕생하는 그날까지

▶한줄 요약
조선의 재가 여성 신도들은 불화의 재정적 후원자를 넘어, 불화와 함께 봉안된 복장낭을 손수 제작하며 적극적인 신심과 간절한 염원을 드러냈다.



공덕 수놓은 조선 여인의 신심

조선 후기에 불화와 불상은 예외 없이 출가 남성 수행자인 승려 장인에 의해 만들어졌다. 비구니 스님 가운데 전문적인 화승(畵僧)이나 장인으로 이름을 남긴 분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또한 재가(在家) 여성 신도 중에서도 예배용 불화나 불교적 주제의 그림을 그린 화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같은 시기 중국이나 일본에서 비구니 스님이나 재가 여성이 예술의 주체로 활약했던 모습과 대비된다. 그렇다면 조선의 여성들은 불교미술의 제작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상궁을 비롯한 재가 여성 신도들은 불화의 시주 과정에서 재정적 후원자를 넘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를 찾아냈다. 그 접점이 바로 불화와 함께 봉안된 '복장낭(腹藏囊)'이었다.



복장낭(일월수 다라니주머니) 세부, 조선 19세기 중반, 사직에 자수, 서울공예박물관, 국가민속문화유산. 사진=서울공예박물관



복장낭(일월수 다라니주머니) 뒷면 묵서, 조선 19세기 중반, 57×25.5㎝, 서울공예박물관, 국가민속문화유산. 사진=서울공예박물관

바늘과 실로 쌓은 공덕

복장낭은 말 그대로 '복장(腹藏)'을 담은 주머니다. 복장이란 불상이나 불화를 불전에 봉안하기에 앞서 이들을 여법한 예경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신성성을 부여하는 의례를 뜻한다. 오방(五方)을 관장하는 스님들이 수인(手印)을 맺고 진언(眞言)을 외우고 관상(觀想)을 행하며 만든 후령통(喉鈴筒)을 불상 내부에 봉안하는 것이 복장의 핵심 절차다. 불화의 경우 형식에 따라 봉안 방식이 달랐다. 족자형 불화에는 화면 위에 후령통을 담은 주머니를 걸었고, 액자형 불화에는 화면 뒤쪽 공간에 후령통을 안치했다.

복장을 위해 주머니를 사용하는 전통은 늦어도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589년에 조성된 일본 효고현 야쿠센지(藥師寺) 소장 감로도(甘露圖)의 화면 상단 중앙에는 복장낭이 묘사돼 있다. 이는 이미 16세기에는 불화에 복장 의례가 베풀어졌고, 주머니의 형태 역시 후대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조선 후기에는 불전 안에 봉안되는 족자형과 액자형 불화에서 대형 야외의식용 불화인 괘불(掛佛)에 이르기까지 불화의 형식과 관계없이 복장낭이 사용됐다. 이 시기에는 불화뿐 아니라 불보살의 명호(名號)를 적은 휴대용 불교 번(幡)에도 복장낭을 매달았다.

불화에는 대개 화기에 제작자와 조성 사찰, 시주자의 이름이 빠짐없이 기록된다. 하지만 불화와 함께 봉안된 복장낭에는 시주자의 이름이 명기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 점에서 소수이지만 시주 기록이 남아 있는 복장낭은 더욱 눈길을 끈다. 흥미롭게도 이들 복장낭의 상당수는 정5품의 궁중여관(宮中女官)인 상궁(尙宮)에 의해 봉헌된 것이었다. 명문에 자신의 신분이나 법명(法名)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청신녀(淸信女)'라고만 적기도 했다. 이는 민간의 재가 여성 신도가 발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청신녀'는 범어 우파시카(upāsikā)를 번역한 말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키는 재가 여성을 뜻한다. 이름 대신 신앙인의 정체성을 택한 표기라고 할 수 있다.

조선 말기 불화와 그에 부속된 복장낭의 명문을 함께 살펴보면, 양자의 시주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불화는 왕실 여성들이 발원하고 복장낭은 상궁이나 궁녀들이 제작해 시주한 사례가 그것이다. 이러한 후원 방식의 분화는 재가 여성들이 각자의 조건과 역량에 맞는 공양물을 선택했음을 보여 준다. 왕실 여성들이 재원을 부담했다면, 상궁이나 궁녀들은 자신이 익힌 바느질과 자수의 기술을 시주로 내놓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자수로 만든 불상인 수불(繡佛)은 많은 노동과 시간이 투입되는 만큼, 매우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공양물로 믿어졌다. 같은 맥락에서 바느질로 만들고 자수로 장엄한 복장낭 역시 특별한 공양물로 여겨졌을 것이다. 궁녀들이나 평민 출신 재가 여성들은 어릴 적부터 익힌 기술과 여가 시간, 그리고 잘 간직해 둔 재료들을 모아 복장낭을 만들었을 것이다. 불상과 불화를 완성하는 데 복장의례가 지니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복장낭을 손수 제작하는 행위는 이들 재가 여성들에게 매우 적극적인 신심의 표현이자, 스스로 공덕을 쌓는 의미 있는 실천이었을 것이다.



극락구품도 세부, 조선 1885년, 흥천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사진=불교문화유산연구소

동갑내기 두 상궁의 염원

서울공예박물관에 소장된 한 쌍의 불화 복장낭은 조선 말기 불교미술의 시주자이자 창조적 주체로서 상궁의 존재를 여실히 보여 준다. 두 개의 복장낭은 전체 구성이 거의 같지만 세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매듭 장식이 달린 고리 아래에 만개한 연꽃 모양의 덮개가 놓이고, 그 아래로 주머니 몸체와 부채 모양 장식으로 마감된 세 줄의 띠가 늘어진다. 전면의 자수 도상 역시 동일하다. 활짝 핀 연꽃 위에 선 동자(童子)가 두 손으로 연꽃 줄기를 쥐고 있다. 붉은색 저고리와 녹색이나 청색의 하의를 입은 두 동자의 모습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닮아 있다. 연꽃 줄기는 위로 뻗어 두 갈래로 갈라지고, 덮개에 수놓인 만개한 연꽃으로 이어진다.

동자상의 머리 위와 좌우에는 발원문이 세 줄로 나누어 배치돼 있다. "상궁 청신녀 기유생 김씨 허공화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큰 서원으로 빈다(尙宮 淸信女己酉生金氏 虛空華極樂地大願)"는 내용이다. 상궁 류씨 묘진화(柳氏 妙眞華)가 시주한 복장낭의 발원문도 같은 형식이다.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간 두 동갑내기 상궁은 아마도 평생을 함께한 동무였을 것이다. 상궁의 품계가 입궁 후 30여 년이 지나야 겨우 주어졌음을 감안하면, 이들이 이 복장낭을 만들었을 즈음에는 적어도 40여 세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 복장낭에서 흥미로운 점은 상궁 김씨 허공화와 류씨 묘진화가 자신들의 왕생한 모습을 동자의 형상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이다. 정토계 경전에서는 극락에 왕생한 이들의 형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왕생자의 형상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됐다. 머리를 짧게 깎고 붉은 저고리를 입은 동자의 모습은 초록색 당의에 남색 치마를 입은 현실 세계의 상궁과 다르며, 옷을 벗은 어린아이로 묘사된 조선 말기 극락구품도(極樂九品圖) 속 왕생자와도 다르다.

흥미롭게도 두 동자의 모습은 왕실 원찰인 서울 흥천사(興天寺) 극락보전에 봉안된 극락구품도 속 왕생자와 매우 닮았다. 건명 계유생 홍씨와 청신녀 갑오생 심씨 대비화(沈氏 大悲華)가 함께 발원한 흥천사 극락구품도에는 정확한 조성 연대가 남아 있지 않지만, 같은 법당에 함께 봉안된 신중도(神衆圖)의 화기 내용을 통해 1885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흥천사 극락구품도는 궁중회화 속에 등장하는 장수와 복락의 도상이 적극적으로 수용된 불화로도 잘 알려져 있다.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복장낭과 흥천사 극락구품도는 자수와 불화라는 서로 다른 매체로 만들어졌지만, 19세기 중후반을 살았던 재가 신도들이 상상한 극락에 왕생한 존재의 모습을 보여 준다.

복장낭의 뒷면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 복장낭 몸체의 뒷면에는 부모와 형제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한글 발원문이 먹으로 적혀 있다. 조선 사회에서 한문은 공적인 문자이자 남성의 문자였고, 한글은 사적인 문자이자 여성의 문자였다. 이 같은 이중 문자체계는 예술과 물질문화의 영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화에는 한문만 사용된 반면, 불화, 도자기, 자수 등 전통적 예술 범주에서 벗어난 조형물에서는 한글이 나타난다. 상궁 김씨 허공화와 류씨 묘진화의 복장낭에서는 이러한 이중의 문자 질서가 보다 섬세한 방식으로 표출됐다.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앞면에는 한문 발원문을 수놓고, 시야에서 가려진 뒷면에는 한글 발원문을 적은 것이다. 이 같은 배치와 문자의 선택은 불교공예품이라는 세부 영역 안에서도 조선의 문자 위계 구조가 적용된 양상을 보여 준다.

작은 주머니, 큰 서원

이 글에서 살펴본 한 쌍의 복장낭은 여성 신도들의 이름과 간절한 염원이 직접 새겨진 물질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언뜻 단편적이고 주변적인 유물로 보이지만, 이 작은 주머니들은 여성이 가문이나 사회가 부여한 이름과 역할을 넘어 스스로 선택한 이름 아래 서원을 실현해 나갔음을 조용히 증명한다. 복장낭은 손바닥만한 크기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여성들이 선택한 신앙의 형식, 그리고 스스로 쌓아 올린 공덕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끝〉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